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 “누가복음 7장 11절~16절 강해 설교”

즉시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제히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곧장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였습니다.

기이하고 감동적이며 은혜로운 이 사건 기록에 함축되어 있는 신령한 교훈을 자세하게 분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장면에는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연민(憐憫)에 의하여’ 청년이 살아 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기록된 구절에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원어(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영어성경 중에는 “그의 마음이 동정으로 흔들렸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말 표현으로 직역하면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심정을 의미합니다. 심히 가슴 아파하여’라고 형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아들을 키우면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장성하게 된 아들마저 졸지에 죽었으니 운구되는 관 앞에서 슬피 울며 가는 그 여인의 절망과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에 연민과 동정이 가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 비유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겪게 되는 곤란과 고통을 보고 들으면 연민으로 마음앓이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피력하기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라”(고후 11:28,29) 하였습니다. 설교를 작성할 때는 여러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고려하여 한 문장 한 단어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이 있는 분을 염두에 둡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슬픈 일을 전혀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신유기도 할 때마다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슬픔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때를 따라 보살피신다. 나는 외톨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용기와 힘이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어린 사슴으로 실험했습니다. 풀밭에 전기가 통하는 철조망을 두르고 그 안에 어린 사슴 한 마리를 두었습니다. 어린 사슴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전기충격을 받고 놀라 다시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만 두려워서 펄펄 꿈쩍 못하고 그 자리에 묶인 듯 앉아있었습니다. 그러자 철조망을 치웠습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르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철조망 속에 어린 사슴을 두되 어미 사슴과 함께 두었습니다. 어린 사슴이 뛰어 나가려다가 역시 전기충격을 받고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철조망을 치우니 아무 두려움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으나 두 마리의 어린 사슴이 반응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어미가 함께 있고 없는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미가 함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슴은 전기 철조망에 닿고도 심하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이 제거된 것을 보고는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사슴의 반응하는 행동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교훈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동식물 심지어 미물을 통하여서도 지혜를 얻고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린 사슴으로 실험하여 관찰한 결과를 예로 든 것은 어린 사슴도 그러할진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아는 성도는 곤란을 당해도 용기를 상실하거나 좌절하지 않음을 여러분이 인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듯이 처음부터 성숙한 신자는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슬픔의 경험은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이며 수업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신다면 고난과 슬픔을 겪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 겪어야 할 단련이다.”라고 생각하며 고난과 슬픔이 가져오는 유익을 모두 취하게 되기까지 감사와 인내로 전진하십시오.

고난과 슬픔을 신앙성숙으로 승화시키는 신자들의 신앙고백에 속하는 찬송가 중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 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옵소서 아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롭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는 병든 자, 곤경에 처한 자, 슬픔에 처한 자들을 보실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 하신대”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훈과 불쌍히 여기심이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세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공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권능에 의하여’ 청년이 살아 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사명 수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관련된 사건기록이 있습니다.

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선포한대로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인근지역에 심한 가뭄이 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시돈 땅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기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16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40장(새찬송가 79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께서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다음 날 ‘나인’이라는 성을 향하여 가시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습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문을 통하여 출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피리소리와 슬프게 애곡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장례관습에 따라 직업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상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운구되고 있는 관 앞에서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겨우 가누면서 슬피 우는 여인이 보입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상여에 가까이 가서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던 자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시신은 대체로 세마포로 감싸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상여는 버들가지로 만든 뚜껑 없는 관에 시신을 담은 것입니다. 상여의 앞뒤에 손잡이가 있고 상여꾼들이 이를 잡고서 운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난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극한 슬픔으로 인하여 흐르던 눈물이



그 과부의 집에 가뭇이 지나도록 밀가루와 기름이 통에서 계속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갑작스럽게 발병하여 위독하게 되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큰 충격을 받고 엘리야에게 가서 “왜 내게로 와서 나에게 이런 재앙을 받게 하는가?”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엘리야로 인하여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자 크게 기뻐했으나 소중한 아들이 죽으니 양식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과 엘리야 선지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엘리야는 과부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므로 그 심정을 이해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죽은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보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였습니다.

②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왕래할 때 자주 수넬이라는 성읍에 들리곤 했습니다. 수넬에 한 부요한 생활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 대접하기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수넬 여인은 남편과 의논하여 엘리사가 명상과 기도와 저술을 할 수 있도록 집의 평평한 지붕에 다락방을 잘 꾸며 제공하였습니다. 자녀가 없던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들에서 추수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달려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56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추수 때가 일 년 중에 가장 더운 때입니다. 이 아이가 들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갔다가 아마 일사병에 걸린 듯합니다. “내 머리아, 내 머리아.” 하고서 고통을 하기에 그 아버지가 사환에게 명하여 어미에게 데려가라 했습니다. 아이가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한 낮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수넬 여인이 아이를 안고 선지자 엘리사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선지자의 침대에 아이를 눕혀 놓은 후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죽은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한 후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싸늘하던 그 아이의 시체가 다시 체온이 생겨나서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엘리사가 수넬 여인을 불러서 이 아이를 취하라 하니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갔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① 읍바에 ‘다비다’라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상당히 부유하였으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찢어 다락에 안치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다락방은 옥상에 있는 넓은 방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룿다로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주위 사람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여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그때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생전에 자기들에게 베푼 선행과 구제행위를 말하며 그 증거물로 자신들이 받았던 겂옷과 속옷을 보여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후 시신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②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가서 한 주간을 머물렀습니다. 주일에 성만찬을 거행하려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드로아 성도들이 예배 장소로 사용한 이 집은 3층 집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서 밝혀 놓았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방안에 등불을 많이 켜으니 실내 공기가 많이 탁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하므로 신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하려고 밤중까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장시간 설교를 들으면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밀려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의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창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삼층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으니 십상팔구는 죽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내려가서 일으켜 보니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바울이 달려 내려와서 그 죽은 자의 몸 위에 엎드려 끌어안더니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측은히 여기며 끌어안고 기도하자 살아난다는 확신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몹시 놀라고 당황하다가 죽은 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으로 인하여 도리어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새벽까지 감격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선지자와 두 사도에 의하여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그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작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즉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 외에는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뇌와 심장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장시간 지난 시신이 살아난 사건은 없습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그 같은 일이 종종 있으면 전도에 긍정적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때 이른 죽음을 맞은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겪게 되는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과 슬픔이 해소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날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과 권능이 다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너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3~18)**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날이 옵니다. 부활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슬픔과 죽음이 전혀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반면에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죽음으로 인한 이별과 거기에 따른 온갖 곤란이 있을지라도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견디며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까지도 무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섭리하여 주심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몸의 부활과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경험을 가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경험한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난 일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성도의 영적 실상에 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였습니다.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던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님의 ‘공홀과 권능’에 의해 엄청난 감격과 환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휴가와 부활 시에 이보다 몇 십배 아니 몇 만 배 더한 신비하고 놀라운 환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이런 환희를 경험할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본문의 15절에는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과부에게 살아난 청년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엄청난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신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주어도 여기에 비할 것은 없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실감하는 정도의 차이는 각 사람이 누리는 행복감의 크기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16절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청년이 곧장 일어나 앉고 말하는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죽은 청년의 시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즉시 살아나서 말하는 광경을 본 나인성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고작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인식에 이르지 못하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인식하고 찬송하는 것은 사실상 허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일부 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있다.”라는 주장,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세주가 있으며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주장, “유물론적 무신론과 공산주의에 대하여 비판하고 경계하는 말을 삼가야 한다.”는 주장,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며 점을 치는 행위는 민속 종교를 존중하고 민속 문화에 흥미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은 모두 인본주의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인, 신학교수, 목사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와 예배에 관한 인식이 고작 여기까지이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인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인식,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인식, “우상숭배 하거나 점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인식에 이르지 못하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허망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 참된 예배에 관한 인식은 100% 성경대로야 합니다. 99.9%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가 아니면 어떤 주장이나 인식이든 모두 무익하고 무가치합니다.